

# 우리나라의 송이경영

박 현 / 임업연구원 버섯연구실

## 서 론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신라 성덕왕 3년(704)에 송이를 왕에게 진상했다고 하므로 송이가 생산된 것은 1,3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송이가 현금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 일본으로 수출을 시작한 이후로서 30여년의 시간에 불과하다. 아무튼, 송이는 일반 식용버섯과 달리 인공재배가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계절적인 상품으로서 그 가격이 매우 높다.

한편, 송이의 생산이나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1900년대 초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과 더불어 소규모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소개되었다. 특히, 1980년 초 일본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후 송이 생산성 향상이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생산자들에게도 소개되면서 산업적인 성격을 띠고 송이산 경영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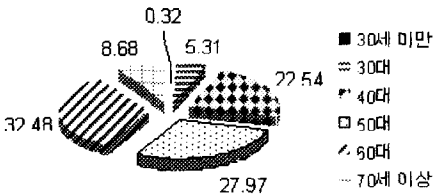
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 송이 채취업의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송이 채취자들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송이 채취업을 하고 있을까? 송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송이 유통과 관련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송이의 생산자들의 생산성이나 소득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생각을 지니고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해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1999년의 송이 소득자를 중심으로 송이 채취자들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 결과를 잘 해석한다면, 송이 관련 정책 입안이나 송이 유통과 관련되는 일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본 론

### (1) 송이 채취업 증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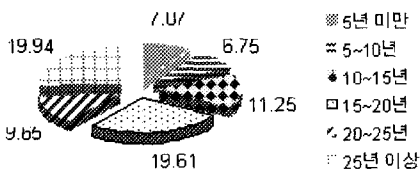
#### (가) 일반 사항

우리 나라 송이 채취자의 나이는 평균 56세



〈그림1〉 송이 채취 참여자 연령분

로서, 대체로 50대 이상의 노령 인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그림 1). 하지만, 40대 이하의 채취자도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송이 채취에 대하여 젊은층에서도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송이 채취가 산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현대의 산업화 사회 구조에도 불구하고 송이와 같이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개발된다면 젊은 인구의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을 억제하며 도시인구의 산촌으로의 회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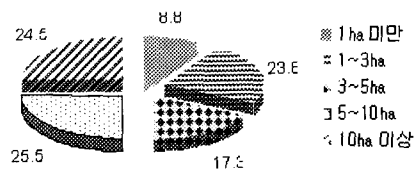
〈그림2〉 송이 채취 참여경력 분포

그러나, 송이 채취 참여 경력을 보면 평균 18년으로서, 85% 이상의 송이 채취자가 10년 이상의 채취 경력을 지닌 사람이며, 5년 미만의 경력으로서 최근에 송이 채취에 참여한 사람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그림 2). 실제로 송이가 산촌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절정

을 이룬 시기가 1990년대 초반임을 감안한다면 10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생산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아직도 송이 생산은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보편화되지 못한 품목임을 깨닫게 한다. 즉, 단순한 채취에 의존해야 하는 송이 채취업은 산촌의 인기 있는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기 위하여 재배체제로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장 인공재배가 되지 않을 지라도, 송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송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송이 생산에 관여하는 산촌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산촌으로 도시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전업 여부

송이는 단기간에 많은 소득을 안겨주는 좋은 품목이지만, 일년 내내 이것만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취자의 92% 이상이 송이 채취업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77%)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겸업자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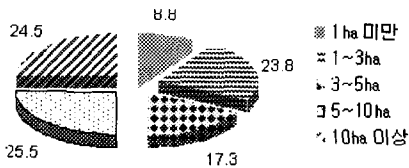


〈그림3〉 송이 채취자의 산림소유 면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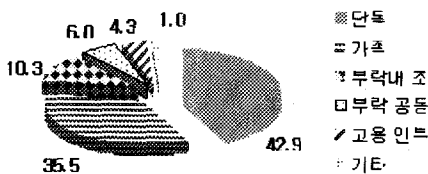
는 임업 또는 임산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의 약 32%는 표고 재배업, 27% 정도는 밤나무 등의 유실수 재배업, 또 다른 18% 정도는 산채나 약초 채취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고령 인구일수록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다른 직업이 아예 없이 송이 생산시기에 송이 채취만 하고 살아간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 산림 소유

송이 채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산을 통한 소득에 익숙한 사람들이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산림 소유면적이 많다고 예상할 수 있다. 송이 채취자 중 이상이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0ha 이상의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1/4 정도 되었



<그림3> 송이 채취자의 산림소유 면적분포



<그림4> 송이 채취 및 판매 참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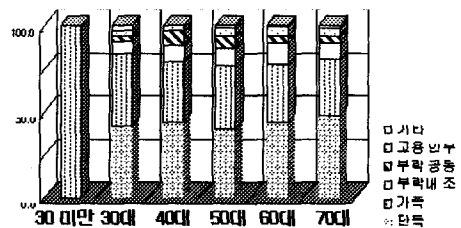
다(그림 3). 반면, 1ha 미만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9%에 불과하였다. 즉, 송이 채취자는 대부분 산촌에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2) 송이 채취방식 및 장소

(가) 채취방식

송이가 나는 자리는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한다. 즉, 혼자만 송이가 나는 장소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채취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는 의미이며, 실제 조사 결과, 혼자 채취하거나 가족단위로 채취하는 방식이 전체의 80%에 육박하고 있었다(그림 4). 그렇지만, 최근에는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유상양허 받는 방식이 많아지면서 마을 공동(6%)이나, 마을 내에서 조를 편성하여 조 단위로 채취하는 형태(10.3%)도 꽤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용인부를 사용하여 채취하는 형태, 즉 기업적으로 송이를 채취하는 형태는 여전히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채취방식은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그림 5), 특히, 30세 미만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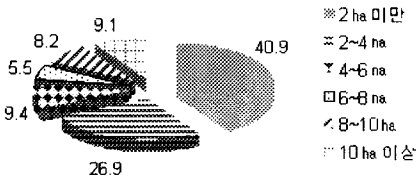


<그림5> 연령별 송이 채취 및 판매 참여방식

우는 단독으로 채취하는 예가 없이 가족과 함께 송이를 채취하고 있었다. 즉, 30세 미만의 송이 채취자는 아직 독립적인 송이 채취업자가 아니라 가족의 송이 채취를 보조하는 수준임을 나타낸다.

(나) 채취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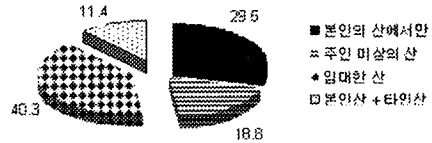
개인별로 송이 채취를 위하여 하루에 돌아보는 면적이 4ha 미만인 사람은 옹에 달하는 반면, 10ha가 넘는 사람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1인당 송이 채취면적의 평균은 3.8ha로 나타났다(그림 6). 또한, 30대 이하의 경우는 평균 5ha 이상을 돌면서 송이를 채취한다고 대답한 반면, 70세 이상은 평균 3ha를 돌아본다고 응답하였다. 즉, 젊은층은 넓은 면적을 돌아보는 반면, 노년층은 소규모의 면적을 본인의 대상지로 삼고 있어서, 송이 채취업도 일정한 체력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그림6> 개인별 송이 채취 대상면적

송이는 본인 소유의 산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산에서 채취하는 경우가 많다(그림 7). 적은 면적이지만 송이가 생산되는 본인의 산을 팔지 않고 계속 소유하며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은 약 30% 수준이었으며, 임대한 산이나 주

인을 알지 못하는 산에서 채취하는 경우가 옹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주인을 알지 못하는 산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이 19%에 이르고 있음은 특기할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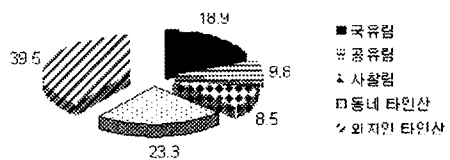


<그림7> 송이 채취장소(소유주 구분)

한편, 40대 이하의 약 50%, 50~60대는 약 40%, 그리고 70대는 약 25%가 타인 소유의 산에서 송이를 채취한다고 대답하여, 송이산 임대는 젊은층에 의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송이산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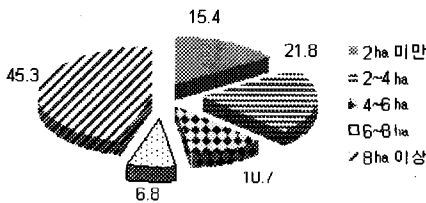
앞서 살펴보았듯이, 송이 채취자의 옹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산에 들어간다. 이중 임대계약에 따라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은 80%가 안되고, 20.8%에 달하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도 없이 송이를 채취하고 있다. 또한, 임대한 산의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외지에 살고 있는 소유주의 산이 약 40%를 차지하며,



<그림8> 송이 채취를 위해 임대한 타인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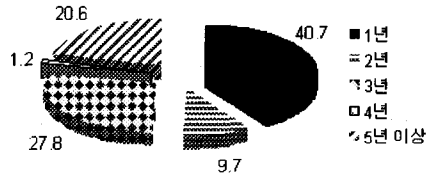
국·공유림 및 사찰림이 약 37%를 차지한다(그림 8). 즉, 같은 동네 다른 사람 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약 23%로서 임대를 통해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

송이 채취를 위해서는 대체로 송이가 생산되는 국소 지역만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산을 포함하여 임대하므로 임대 면적이 넓게 나타난다(그림 9). 2ha 미만의 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15%에 그치고 있으며, 8ha 이상의 면적을 임대한 사람의 비율도 45%를 넘어서 대규모의 산 전체를 관리해 주면서 송이를 채취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즉, 주인은 본인 소유 산의 어느 부분에서 송이가 생산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지역의 송이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에게 의하여 임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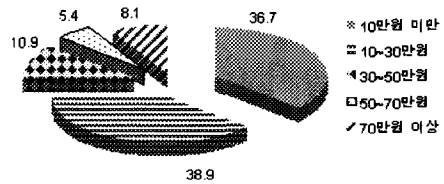


〈그림9〉 송이 채취를 위한 임대면적

임대기간을 살펴보면, 50% 정도의 임대인은 1~2년간 임대하여 송이 채취에만 신경을 쓰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3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설정하여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송이를 채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0). 한편, 이들의 임대료는 ha당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50만원/ha 이상의 금액



〈그림10〉 송이산 임대 계약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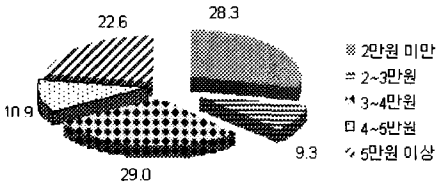
〈그림11〉 송이산의 연간 임대료

을 지불하는 예는 적어 평균 25만원/ha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 (3) 노동력 및 장비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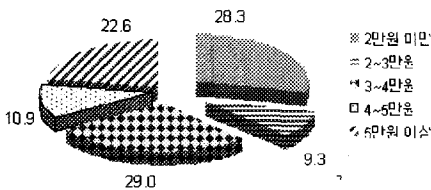
#### (가) 자가 노동력

송이가 생산되는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이다. 조사결과, 평균 27일 정도 송이 채취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0일~40일 정도 송이 채취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그림 12). 한편, 강원이나 경북지역의 경우, 송이 채취에 투자한 시간이 40일이 넘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각각 4~8%에 달하여 송이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40일 이상 송이 채취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2〉 일년중 송이 채취에 참여하는 기간

자가노동력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송이가 생산되는 시기에 송이 채취를 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본 결과, 2만원을 버는 것도 어렵다는 응답을 한 사람이 28.3%에 달하였다. 물론, 5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4 정도를 나타내었지만, 평균 단가는 3만원을 약간 넘는 금액이었다(그림 13). 결국, 한 달 정도의 송이 채취기간에 투자되는 자가 노동력은 90만원을 다소 밑도는 것으로 주장되었으며, 젊은 층의 경우는 다른 일을 통한 수익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는 송이 채취가 송이 생산기의 유일한 소득원이 되는 예도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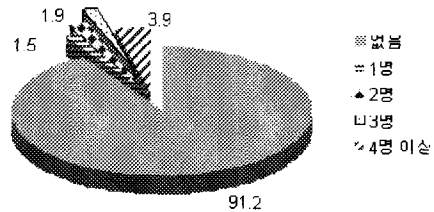


〈그림13〉 송이 채취기간 중의 자가 노동력 단가

(나) 외부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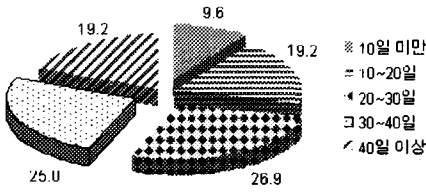
앞서 살펴보았듯이, 송이는 대체로 혼자 채

취하거나 가족 단위로 채취 및 판매를 한다. 따라서,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91.2%가 외부인력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체로 대규모 송이산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4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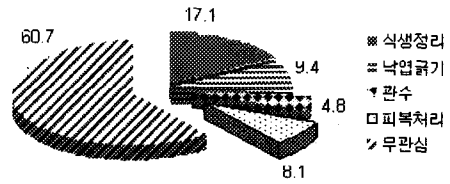


〈그림14〉 송이 채취를 위해 고용한 외부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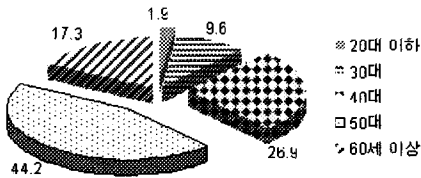
물론, 고용하는 인부는 송이가 잘 발생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만, 인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송이 채취를 위해서만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송이가 발생하기 전부터 송이 채취를 위한 준비작업부터 고용인부를 통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송이 채취기간보다 더 긴 시간동안 인부를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일 미만을 고용하는 예는 1/3 수준에 머무른 반면, 40일 이상을 고용한 경우도 20%에 가까워서 평균 고용일수는 35일에 육박하였다(그림 15). 또한, 고용되는 인부도 40대 이상이 89%를 차지하고 있어서, 젊은 인력이 주로 사용되기보다는 장·노년층 인구가 송이 채취와 관련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16). 특히, 50대가 44%를 차지하고, 60세 이상도 17% 이상을 차지



〈그림15〉 송이 채취를 위한 외부인력 사용기간



〈그림17〉 송이 생산기반 사업에 대한 관심도



〈그림16〉 송이 채취시기의 외부인력 연령 분포

하고 있어서 송이는 산촌 노령인구의 좋은 일거리가 되고 있었다.

(다) 송이 채취를 위한 장비 등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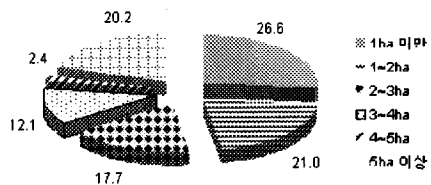
사실, 송이 채취를 위하여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무런 채취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30%도 송이가 생산되는 시기에 야영을 하거나 운반을 하기 위한 비용이 약간 소요된다고 응답하였을 뿐이다.

(라) 생산기반 관리를 위한 투자

따라서, 송이 생산기반의 확충이나 관리를 위하여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1980년 이후 임업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지도 기관에서 식생정리 등 송이산의 생산기반 관리를 위한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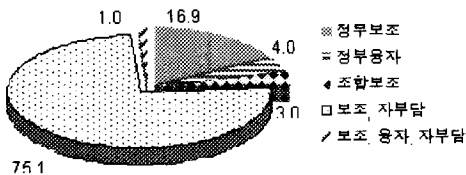
자를 역설하여 왔지만, 아직도 송이산 관리에 대하여 관심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0%를 넘었으며, 식생정리나 관수에 대한 투자도 극히 미미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17). 즉, 대부분의 송이 채취자들이 송이는 아무런 투자 비용이 없이 단순하게 채취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송이산 환경관리를 위한 투자효과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사업을 실시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ha 이상의 면적을 실시한 사람도 전체 응답자의 1/3에 해당하였고, 평균은 2.92ha이었다(그림 18). 물론, 1ha 미만의 면적을 대상으로 송이 생산기반 관리를 실시한 사람도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특별한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평소에 스스로 가지치기나 소규모의 간벌 등을 실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론은 응답자의 1/3이 송이 증산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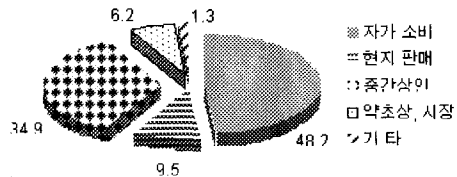
〈그림18〉 송이 증산사업면적

업을 위해 정부 보조사업비와 더불어 자기 부담금이 있었다고 대답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9). 한편, 융자금을 포함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응답자는 겨우 5%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업이 융자 사업으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그림 19〉 종이 생산기반 사업 투자비 재원

즉, 총 생산량의 1/3 이상이 공식적인 공판제도의 밖으로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자가 소비되거나 중간상인을 통해 유통시킨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지에서 판매되는 양도 10% 수준에 육박한다고 대답하였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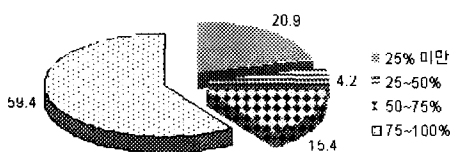


〈그림 21〉 공식 공판 이외의 종이 소진 방식

#### 4) 종이의 유통

##### (가) 공식 · 비공식 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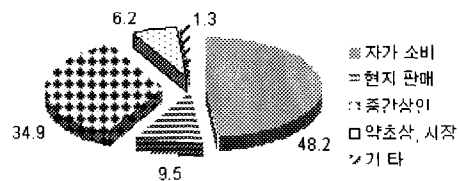
본 경영실태의 기준연도인 1999년의 경우, 종이는 종이 사용제한고시에 따라 산림조합에서만 공판을 실시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종이를 산림조합을 통해서만 공판하였다고 대답한 사람은 없었으며, 산림조합에 공판한 양은 평균 66% 정도라고 응답하였다(그림 20).



〈그림 20〉 공식적인 종이 공판 참여 비율

##### (나) 기존 유통방식에 대한 태도

본 조사는 1999년의 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기에, 산림조합의 종이 독점공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규제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산림조합의 독점공판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40%에 달하였지만, 농협의 공판을 허가하거나 완전히 자유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지닌 사람도 약 40%가 되고 있었다(그림 22). 따라서,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취지도 있는 독점공판 제도이었지



〈그림 22〉 산림조합 독점공판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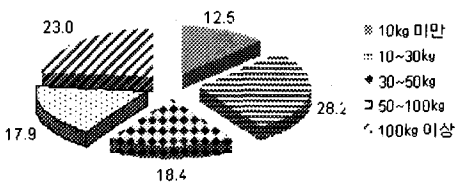


만,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00년 이후 생산자를 포함한 일정 규격을 지닌 영농조합법인 등이 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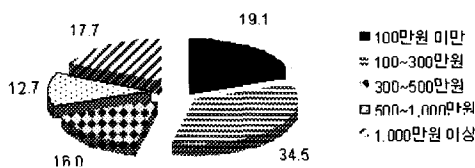
(5) 송이 채취 비용/소득

(가) 송이 채취를 통한 수입

전체 응답자의 단위 면적당 송이 생산량은 20.1kg/ha, 소득액은 153.7만원/ha로서 송이 생산자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하는 평균 단가는 76,000원/kg이었다. 또한, 1인당 송이 채취량은 평균 81kg/년의 수준으로서, 연간 30kg 이상의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이 전체 생산자의 60%에 가까웠다(그림 23). 이에 따라 연평균 500만원 이상의 송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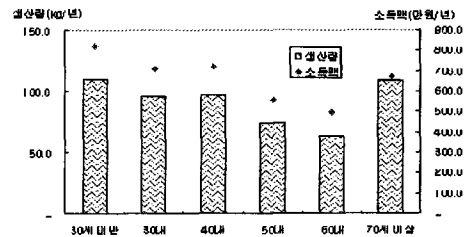
〈그림 23〉 송이 채취자의 평균 생산량 분포



〈그림 24〉 송이 채취에 의한 연평균 소득

전체 생산자의 30%가 넘고 그 평균 소득액은 600만원에 이른다(그림 24).

각 연령대별 송이 생산량이나 송이 생산을 통한 소득금액을 살펴보면, 30대 미만의 젊은 이들이 연평균 110kg의 생산으로 소득액은 평균 8,250,000원을 올리고 있다(그림 25). 반면, 송이 생산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50~60대는 60~100kg의 송이 채취로 5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70대의 노령인구도 송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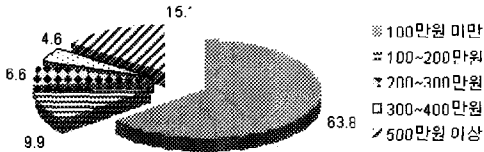
〈그림 25〉 연령대별 평균 송이 생산량 및 소득

(나) 송이 채취를 위한 투자비용

송이 채취를 위한 자가 노동력 이외의 비용은 거의 없거나 3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0%를 차지하였으며, 연간 소요액의 평균은 21만원 정도이었다. 반면, 송이산에 투자한 자가 노동력은 평균 120만원 정도라고 응답하였으며, 외부 인건비를 투자하는 예는 극히 적었지만, 투여할 경우 인건비 단가는 평균 5만원/일로 비교적 높아서 인건비 총액은 평균 656만원에 달하였다. 즉, 송이 채취업은 대체로 가족 중심의 채취업 형태가 많지만, 외부 인

력을 활용하는 경우는 기업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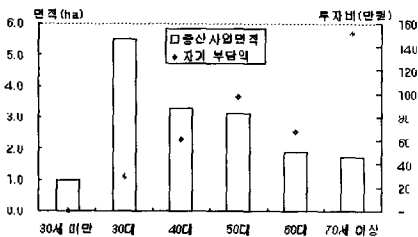
한편, 송이산 관리를 위한 투자도 늘어난 상태이지만, 자기 부담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63.8%)이며, 평균 투자비용은 218.4만원/인으로서 ha당 투자비용은 793,000원으로 나타났다(그림 26).



<그림 26> 송이 증산사업을 위한 자기 부담 비용

연령에 따른 투자 규모도 차이가 있었는데, 30대의 경우는 5ha 이상의 면적에 송이 산 관리를 위한 투자를 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증산을 위한 사업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그림 27).

또한, 연령에 따라 투여된 자기부담액도 서로 다른데, 70대는 적은 면적을 관리하면서도 스스로 부담한 비용이 컸다고 응답하여 정부나



<그림 27> 연령별 송이 생산기반사업 투자

산림조합 등의 보조, 용자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 (다) 기타 버섯 채취를 통한 수입

송이 채취자들의 대부분은 다른 버섯 채취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90% 이상), 능이나 싸리버섯 채취에 다소의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능이나 싸리버섯의 채취에 의하여 얻는 소득은 연평균 30만원 미만으로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송이 이외의 버섯을 채취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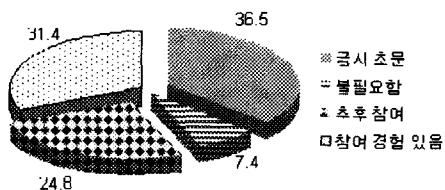
#### (라) 송이 채취 이외의 수입

송이 채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송이 채취로 인한 수익 이외에 얻는 수익은 평균 830만원을 다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수익은 연간 64.2만원으로서 자산에 의한 소득이나 자녀를 통한 수익도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소득액 중 송이 생산에 의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7.3%로 계산되었다.

### (6) 송이산 경영

#### (가) 경영 의지

송이 산 관리나 경영과 관련된 교육이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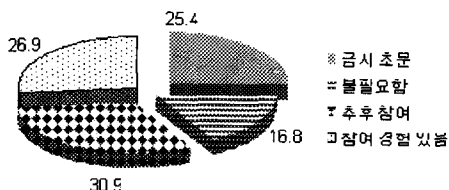


〈그림 28〉 송이 채취자의 교육 참여도

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4%에 불과했다(그림 28). 더구나 이러한 교육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36.5%에 달하고, 이러한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7.4%에 달하였다. 물론, 추후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24.8%에 달하여 참여 경험이나 참여계획이 있는 사람이 반을 넘고 있었다.

(나) 송이 생산기반 사업의 참여도

송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기법을 직접 도입해 본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에 그쳤으며, 정부의 지원이나 용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송이 생산기반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5%에 이르고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포함하면 42%에 달하였다(그림 29). 또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1.5%에 불과하



〈그림 29〉 송이 생산기반 사업에 대한 참여도

고, 그 효과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17.6%, 효과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11.8%이며, 손해를 보았다고 대답한 사람이 3.9%를 넘었다. 즉, 여전히 송이 생산기반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상태이므로, 송이 생산기반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다) 기타

2000년 송이 사용제한고시의 개정으로 폐지된 송이 채취원증 제도에 대하여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4.2%,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1.1% 및 10.1%로 나타났다. 즉, 생산자 입장에서는 송이 채취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이 규정은 아쉽게도 무시된 상태이다.

앞으로 송이 인공재배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48.4%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7.3%는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5%만이 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송이는 자연의 선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닌 소극적인 사람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송이를 재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마음은 4.3%에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결론

송이 채취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

촌지역에 생활기반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별한 투자를 통하여 송이 산업을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미진한 상태로 여겨진다. 즉, 약 10년 전부터 연구성과 홍보나 교육을 통하여 송이 채취업에 대하여 경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산을 관리하며 보속생산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송이 채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연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수확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송이 산업의 발전이나 유지를 위해서는 송이 생산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송이 채취업도 투자를 통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산업이며, 적극적인 관리가 없으면 송이를 더 이상 채취할 수 없게 변한다는 사실도 인식시켜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송이 생산기반사업' 보조비용을 연간 10억원 이상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나 가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송이버섯 사용제한고시'가 규제완화

의 물결과 더불어 공판참여자의 다변화와 송이 채취원증 제도의 폐지 등으로 많이 변화된 시점에서 송이 생산자들조차 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유통업자들의 이익만 극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송이 채취자들도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지를 발휘하여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송이를 유통시키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송이가격은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송이가 일본시장에서 일본산 이외에 최우수 품질을 자랑하여 중국산이나 북한산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으나, '묵송이' 등이 자꾸 섞이면서 우리나라 송이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가격이 예전의 1/2 수준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송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 의지를 고취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나 연구기관의 노력과 아울러, 송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높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생산자나 유통업자들도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야만 하는 시점이다.